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이 문서는 '장애인차별 금지법' 관련
 웹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
 "사본 PDF" 문서입니다.

제7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일 시	2017. 11. 27(월) 12:00
		장 소	본부관 311호
참석인원	의장 이창현, 부의장 윤정국, 김동훈, 한화택, 김영숙, 안승권, 김춘형, 이태준, 전수빈		
업무지원	간사 이승구, 서무 이해경		
불참의원	박성호, 노경조		
발표자	기획부총장 정승렬, 예산평가팀장 조준, 예산평가팀 차장 배수현		
안 건	1.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2. 기타 토의 사항		

◎ 회의내용

- 이승구 간사 : 재적의원 11명 중 노경조, 박성호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이창현 의장 : 개회를 선언함

[안건 1.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 정승렬 기획부총장 :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설명함
- 한화택 의원 : 교내연구비의 감소 항목은 어떠한 것이 감소했는지 묻고 평생교육

원 수입의 감소가 앞으로 건물 매입 등의 투자에 불안감을 갖게 하는 것 같다고 발언함

▪ **정승렬 기획부총장** : 교내연구비가 감소한 부분은 학술대회 지원금이라든가 논문 게재료 지원비 등의 감소로 생긴 부분이라고 말하고 평생교육원의 수입은 2016학년도와 대비해서 늘어났지만 2017학년도에 공격적으로 편성한 예산과 프로그램이 일부 단과대학의 반대 등으로 설치되지 못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하였으며, 평생교육원의 수입 증가 예측이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 개발에 지장을 받는 부분도 있으므로 공간 확충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함

▪ **한화택 의원** : 현재 우리 학교의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교수 비율을 알 수 있는지 묻고 예산의 절감은 이러한 곳에서 일어난 것은 아닌지, 현재의 비율이 적절한지와 향후 이 비율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부총장** :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교원의 비율은 약 7:3 정도인데 궁극적으로는 비정년트랙을 줄여나가야 할 것 같다고 답변함

▪ **김영숙 의원** : 교원 급여가 감소된 부분은 퇴직한 교원 숫자만큼 신입교원을 충원하지 않아서 생긴 부분인 것 같고 건축물관리비, 장비관리비 등의 감소, 안전과 관련된 비용의 감소 등이 눈에 띄는데 이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시설용역비나 보험료의 감소는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것인지 궁금하며 교육훈련비의 감소, 실험실습비의 감소 등 제반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의 비용을 줄여 질적인 역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발언함

▪ **정승렬 기획부총장** :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말하고 학생 수의 감소로 등록금이 감소되는 현재의 환경 내에서 지출을 줄이지 않고는 균형 예산을 맞출 수가 없으며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들이 충분히 걱정할 만한 사항이지만 우선순위를 안전에 두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함

보험료 부분은 입찰을 통해, 같은 조건하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교육훈련비 등은 꼭 필요한 경우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교원확보율은 작년 수치로 거의 1위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한 교원 숫자만큼 신입교원을 충원하는 것이 맞기는 하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실험실습비의 경우는 3억 5천만 원 정도가 줄었지만 이는 각 단과대학의 자율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단과대학의 계획에 따라 줄어든 것이므로 각 단과대학에 지원되는 전체 예산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전체 실험실습비 계정을 놓고 봤을 때 작년 대비 줄어 들지 않았다고 답변함

▪ **김영숙 의원** : 전년도와 대비하여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교육비의 절감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며 대학평의원회에서 총장을 만나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발언함.

또한 현재 우리 학교 조교수의 급여 수준은 하위권에 속하며 교사의 매입과 관련하여 교육의 질적 저하가 명백해보이므로 현재의 정책들이 앞으로의 시대에 대응할 최상의 전략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 **정승렬 기획부총장** : 우리 학교의 급여는 계속적으로 동결한 것이 아니라 동결을 한 적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의대가 없는 대학 간의 비교를 해보자면 하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함

▪ **김춘형 의원** : 조직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미래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학교의 예산 편성을 보면 2016년 보다 예산도 높게 잡고 추경에서 크게 감소를 시키는 등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전년의 결산을 토대로 처음부터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구성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 같다고 발언함.

추경 내용 중 교지매입비 80억은 계약금으로 보이는데 전체 교사 매입 자금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하고 교사 매입을 위해 적립금을 모두 사용하는 것 보다 50% 정도는 차입을 하여 적립금을 남기는 것이 그 적립금을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매입으로 인한 법인의 자산 증식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므로 이자의 부담은 있지만 적절한 차입금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고 발언함.

예비비의 전용은 어느 항목으로나 가능한지 질문함

▪ **배수현 차장** : 예비비는 모든 항목으로의 전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 **윤정국 부의장** : 같은 공사에 대한 내용이 건설가계정 항목에도 들어있고 건축물 관리비 계정도 들어 있는 것인지 묻고 조경관리비 중 정문 앞 광장 내 쉼터 설치가 2억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 재정 하에 이게 적절한 지출인지, 보도블럭 공사 등의 비용은 어느 항목에 들어 있는지 질문함

- **조준 부장** : 건축물관리비 계정에 공사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으며 정문 앞 쉼터 설치비는 단순히 쉼터만 설치한 비용이 아니라 관련된 교내외 시설 공사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함
- **윤정국 부의장** : 경전철과 관련한 비용은 실제 여기 표기된 액수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요구함
- **배수현 차장** : 경전철 관련 비용은 한 항목으로만 지출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임차보증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비용성으로는 홍보비 등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감소된 금액은 진행 과정에서 감액된 액수라고 설명함
- **윤정국 부의장** : 경전철 관련 비용의 감액이 가능한지 질문함
- **조준 부장** : 지하철 역사 내의 이정표나 간판 설치 등의 학교 홍보 비용들이 예상했던 지출액에 비해 줄어들어 감액이 되었다고 답변함
- **윤정국 부의장** : 학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예상을 했지만 예산을 편성했던 복리후생비를 굳이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며 우선순위를 따져 비용을 줄이면서 계획된 부분을 지출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하고 올해 단체협상이 체결되는 것을 예상하고 추경을 조정했는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부총장** : 그렇다고 답변함
- **이태준 의원** : 국가장학금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부총장** :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한 액수로서 전체 수혜 학생 수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함
- **조준 부장** :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 기뻐함을 걱정해 놓고 추경 때 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함
- **이태준 의원** : 건축물관리비의 액수가 등심위의 자료와 다른 것 같다고 질문함
- **조준 부장** : 본예산 분류와 대비하여 분류된 세부 수치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류상의 이동으로 인해 그렇게 보이는 것이며 전체 수치상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함

- **이태준 의원** : 건축물관리비나 장비관리비는 경상비로 책정해야하는 것 아닌지 질문하고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외에 경상비전입금을 내도록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함
- **배수현 차장** : 건축물관리비나 장비관리비는 교비 회계의 경상비이며 지출예산은 수입에 맞춰 편성하고 우선순위를 따져 배정을 해야 하므로 순위가 밀려가는 과정에서 감액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법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법인 역시 한정된 수입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예산을 책정한 것 같다고 답변함
- **조준 부장** :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되며 모두 공개되어 있다고 말하고 수익사업 중에 일정액을 전입금으로 내는 것인데 내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전입금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함
- **김춘형 의원** : 법인전입금이 줄어들었는지 질문함
- **배수현 차장** : 3억원 정도 늘었다고 답변함
- **이태준 의원** : 교사를 매입하면 법인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인데 고려보건대 건물 매입에 법인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등록금의 일부가 건축기금으로 적립되는 만큼 새로운 공간 활용 회의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발언함
- **배수현 차장** : 등록금 중 법에서 인정하는 적립금은 건물감가상각비로서 이는 추후 학교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며 사용이 필요한 경우 용도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안승권 의원** : 회계 문서를 관리할 때 설명 자료에는 요약을 하느라 이렇게 정리하고 실제 관리 문서는 정확한 제목이 나올 수 있도록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는지 묻고 회계란 사업 관리로서도 의미가 있으므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미집행이나 이월이 많은 부서는 다음 예산 편성에 패널티를 주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 **배수현 차장** : 회계문서는 관항목으로 되어 있고 법으로 정한 목까지 보여주고 있

으며 지침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할 수 없으므로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함

▪ **조준 부장** : 관계 법령에 사학 회계는 관항목까지만 적도록 되어 있으나 자문 및 심사·의결을 위해 세부 증감내역을 비교적 상세히 적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함

▪ **전수빈 의원** : 건축물관리비 중 자율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지출은 각 단과대학에서 요구해야하는 것인지 또는 기부금이 있어야 이러한 지출이 가능한 것인지 질문함

▪ **조준 부장** : 자율예산은 말 그대로 단과대학이나 대학원, 부속기관의 자체 자율예산으로 집행한 것이며 법과대학 같은 경우는 자체기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지출을 요청한 것이라고 답변함

▪ **전수빈 의원** : 외국인학생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도리어 외국인학생의 학생지원비는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부총장** : 외국인학생 등록금은 외국인학생에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비 수입으로 책정되어 골고루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함

▪ **김춘형 의원** : 시설용역비가 본예산 대비 1억 5천만 원 정도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가 고용 인원이 줄어서 감소된 것인지 질문함

▪ **정승렬 기획부총장** : 용역 인원을 줄여서 확보한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하에 입찰 과정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답변함

▪ **이창현 의장** : 의원님들이 다양한 질문에 적절한 해석과 설명이 따랐던 것 같다고 말하고 향후 5년간의 퇴직 인원 및 신규 임용 인원을 예측하면 추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화택 의원의 지적사항은 의미가 있는 것 같으며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긴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연구비나 실험실습비의 절감은 장기적으로 출혈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발언함.

지표의 관리가 잘 되어 왔고 이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측면을 조망해가며 계획해야한다고 말하고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속에서 구성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봐야하며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학생들이 등록금의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정리를 해서 추후에 학교 측에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발언함

▪ **윤정국 부의장** : 시설용역비의 세부 내역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예산 편성, 집행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예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발언함

▪ **이창현 의장** : 건물감가상각비는 건물 노화에 대한 준비기금이지만 새로운 건물 구입비는 아니라고 말하고 적립금의 사용 용도가 이사회 결정만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

▪ **김영숙 의원** : 과거 5년간의 편입생 인원과 건물의 구입으로 인한 편입생 증가 예측 인원 자료를 요청함

▪ **김춘형 의원** : 고려보건대 매입 계획이 유보된 특수한 상황이므로 금 번 추경은 과거의 추경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 **이창현 의장** :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아 자료를 검토하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자문을 최종 마무리하기로 함

▪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에 관하여,

- 예산의 절감도 좋지만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의 예산 절감에 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고려보건대 건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전액 적립금만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차입금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적립금을 유지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평의원들 모두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자문을 마침

[안건 2. 기타 토의사항]

▪ **윤정국 부의장** : 고등교육법에 대학평의원회 조항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규정과 달라진 것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므로 검토를 제안함

▪ **이창현 의장** : 고등교육법의 대학평의원회 관련 개정안이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므로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평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다음 회의는 12월 26일(화)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함

붙 임 : 제7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자료 1 부.